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현황과 개발 방향

인 알렉산드르*

소련 내 대학에서 조선어과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50년경이다. 이 당시에 조선어 교과서도 발행되었다. 그 중에서 Y. 마주루(Mazur) 교수(모스크바대 아시아-아프리카 대학)와 V. 드미뜨리에바 교수(모스크바 국제 관계 대학)의 교과서가 잘 알려져 있다.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언어 환경이 없다는 것이다. 구 소련 시대에는 한국말로 된 신문이 사할린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에서 발행되었으며,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과 하바롭스크 라디오 방송도 있었다. 1960년도까지는 사할린에 한국 학교가 있었고, 1937년 강제 이주 전, 연해주에서는 사범 대학 사범학교, 학교 극장도 있었다.

한·러 수교 이전의 한국어에 관한 출판물은 주로 북한 것이었고, 평양 대학과 학생 및 교수의 교환이 있었다. 현재는 한국 측의 도움을 받아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러 수교 이전에는 주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양국간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현재 많은 대학에 한국어과가 생겼으며, 어린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한국말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웅변 대회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대체로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한국어는 인구어(印度語-индоевропейские языки)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러시아어는 SVO(subject-verb-object) 언어임에 비해 한국어는 SOV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 끝에 놓이는, 말하자면 동사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이다.

한국어는 교착어(膠着語-агглютинативный)이기도 하다. 명사가 여러 종류의 조사(助詞-частица,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를 취하며, 무엇보다 동사 어간에 결합되는 어미(語尾-окончание, Флексия)가 많고, 그 어미가 주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시제(時制-время)도 그 의미에 의해 정해지며, 문장 끝의 어미에 의해 서술문, 의문문 또는 명령문 등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경어법도 거의 그 어미들에 의해 구분된다.

한국어의 형용사도 어미를 취한다. 즉 형용사도 동사와 거의 일치하는 활용을 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독립된 품사이기보다는 동사의 한 부류라고 하는 것이 나올 만큼 여러 면에서 동사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한국어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영어에서는 'you' 하나로, 러시아어에서는 'вы' 'ты'로 친구, 아버지, 선생님을 다 가리킬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국어를 배우는 서양인은 흔히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경어법 때문이다.

한국어 음운에서도 러시아어에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러시아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은 '어' '여'이며, 자음은 'ㅈ'(지읒)과 'ㅉ'(쌍지읒)이라고 볼 수 있다. 발음 연습에는 audiotape와 videotape가 많은 도움이 된다.

한국어에는 러시아어에 없는 의성·의태어(звукопорожательные образн

ые слова)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의성·의태어는 대부분 반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어에는 반복 복합어(reduplicative compound)가 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방언인데, 한국어는 다양한 방언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 표준어에 있어서는 외래어 특히 영어가 많다. 이 외래어를 표준어로 수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한국어 방언은 지역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배우기는 아주 어렵다. 한국 문학 작품에 종종 방언이 있으므로 외국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이 부족한 것도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문법 설명은 모국어(러시아어) 문법 용어를 이용하게 되므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은 모국어 문법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그 교수법은 다르지만, 교과서의 근본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내용 순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처음 단계에서는 이중 언어 교수가 바람직하며, 다음 단계에는 한국 교수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Y. 마주루 교수의 한국어 교수법을 간단하게 보기로 하자. 품사의 분류 체계는 한국에서의 문법과는 틀린 점이 있고, 러시아어 문법과 비슷한데 다음과 같다. : 명사, 대명사(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수사(양 수사, 서수사), 동사(능동형, 피동형,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한정사(attributive), 부사, 후치사(後置詞), 접속사, 계사(繫辭), 조사 등. 마주루 교수의 이러한 교수법은 러시아식 사고로 생각해서 보다 쉽게 한국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교육 방식이다. 격(格) 갈래도 러시아식으로 되어 있다. :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처격(местный), 조격, 공격(совместный), 호격(звательный).

부동사(副動詞)의 갈래는

- 1) 결합(-아/-어, -아서/-어서, -고, -며, -거니와)
- 2) 반의(反意) (-나, -는데/-는데, -만/-마는, -건만)
- 3) 시간(-면서, -자, -다가)
- 4) 전제 조건(-니, -니까, -므로, -더니, -느니라도)
- 5) 조건(-면, -더라면, -아야/-어야, -거던, -려면, -거서야)
- 6) 양보(-지만, -아도/-어도, -면서도, -더라도, -느니라도, -르망정)
- 7) 목적(-러)
- 8) 기도(-려/-고)
- 9) 결과(-도록)
- 10) 증가(-르수록)
- 11) 분리(-거나, -건, -든지, -든, -든가)
- 12) 비교(-드시)

그리고 보조어(리, 바, 뿐, 척)와 보조 동사(말다, 버리다, 내다, 놓다, 가다, 오다)의 개념도 사용한다.

보다 상세한 문법적 설명은 이 정도의 개략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는 비디오 카세트, 녹음용 카세트, 신문이나 문학 작품을 이용한 일반적 방법은 물론 연극이나 역할 바꾸기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초적인 문법의 완결성은 물론 상세한 문법적 체계를 논리적·합리적으로 익히도록 하고, 동시에 풍부한 회화의 능력과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10년 넘은 한국어 교육의 경험에서 얻은 견해와 현재 현지에서 외국인(러시아어)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경험을 들은 바를 종합해 보면,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중 언어(자국어와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정확한 견해와 뉘앙스에서 오는 언어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보다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수법으로 가르쳐 왔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이 교수법에 대한 한국의 한국어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싶기도 하다.

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Russia

In, Alexander

In Russia,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was not set in universities until nearly 1950's. Since that time, the textbook written by Prof. Mazur and Prof. Demitrieva has been widely used in most universities. However, nowadays this book can be no more appropriate as a teaching-learning material. It is mainly because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ho study Korean as second language are increasing rapidly in a recent time, and as a result,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a new materials and methods. So now it is time to develop new teaching materials.

In fact, Russian students have some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mainly because of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Russian. Therefore, a new textbook should be design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se grammatical differences.